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및 주요이슈

2014. 5

목차

- 1/ 개관
- 2/ 선진 경제권
- 3/ 신흥 경제권
- 4/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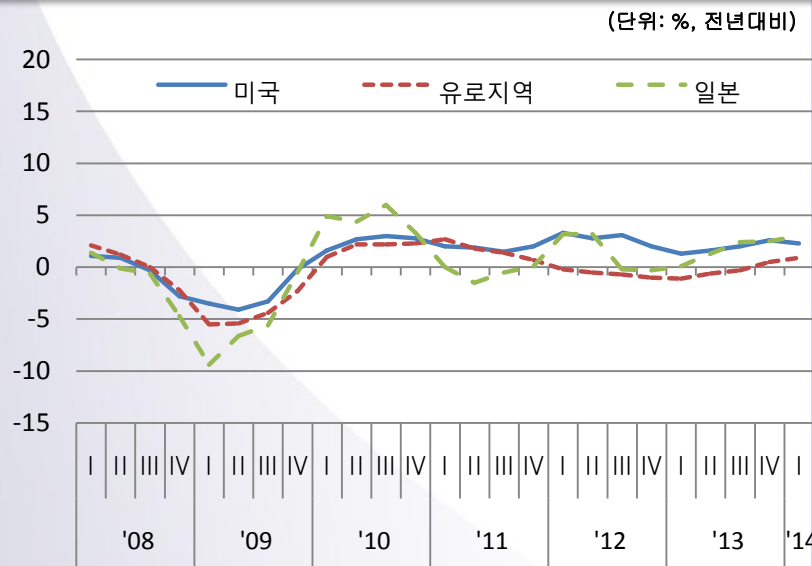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

■ 2014년 세계경제는 더딘 속도의 성장을 이어나가 연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KIEP는 세계경제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보다 0.2%p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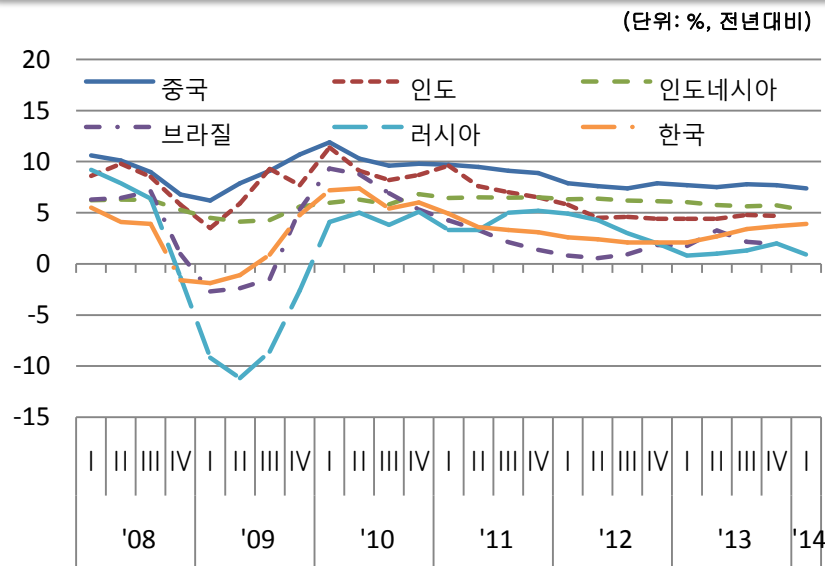
- (선진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
- (신흥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개도국은 성장세 둔화 현저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주: 브라질 및 인도 2014년 1분기 성장률 미발표.

자료: Bloomberg.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

■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한 3.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성장세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

2014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KIEP)

(단위: %, 전년대비)

		2013년 ¹⁾	2014년			
			[2014년 5월]			[2013년 10월]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세계 ²⁾		3.0	3.3	3.4	3.4	3.6
선진국	미국	1.9	2.6	2.6	2.6	2.7
	일본	1.6	1.6	1.0	1.3	1.4
	유로존	-0.4	1.0	1.2	1.1	1.0
	-독일	0.4	1.8	1.8	1.8	1.7
	-프랑스	0.2	0.7	0.7	0.7	0.8
	영국	1.7	3.2	2.9	3.0	2.1
신흥국	중국	7.7	7.3	7.5	7.4	7.7
	브라질	2.3	1.4	1.6	1.5	2.3
	인도	4.6	4.9	5.2	5.0	5.8
	러시아	1.3	0.4	0.0	0.2	3.0
	ASEAN 4 ³⁾	5.1	4.2	4.4	4.3	5.6

주: 1) 실적치.

2) PPP 환율 기준.

3)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GDP, PP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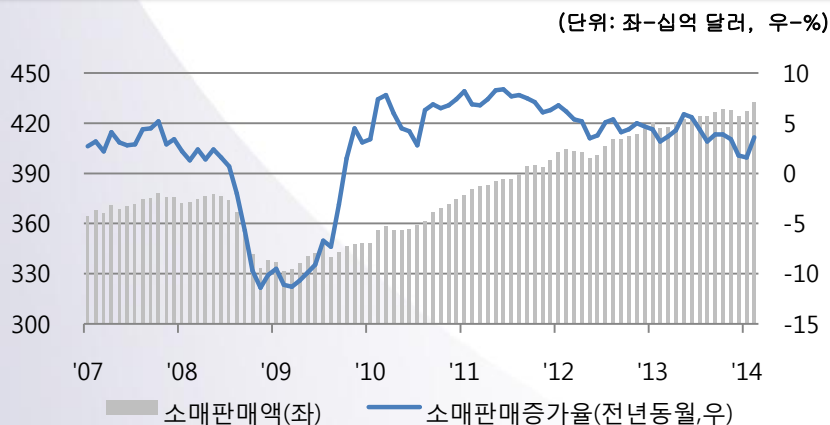
4) [] 안은 전망시기.

선진 경제권

현황: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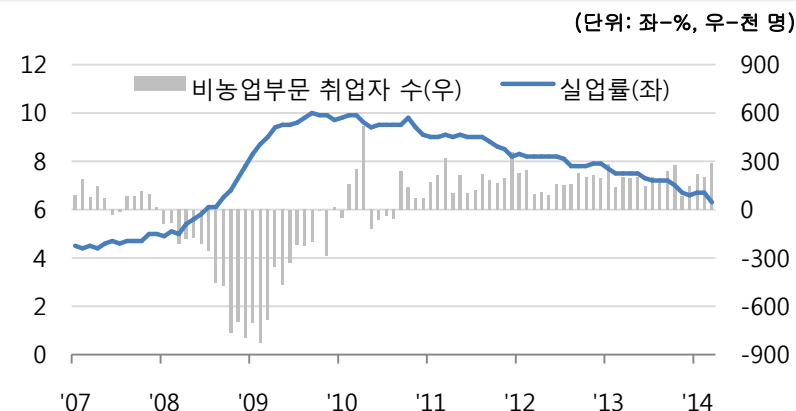
- 1분기 미국 경제는 시장의 예상(1.1%)을 하회하는 0.1%(전기대비 연율) 성장
 - 1분기 민간소비지출은 전기대비 3.0%(연율) 증가
 - 겨울한파의 영향으로 수출선적이 지연되는 등 수출과 투자는 각각 7.6%, 6.1% 감소
- 기후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고용은 순조로운 회복세
 - 소매판매는 전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으나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 실업률: 6.7%('13.12월) → 6.3%('14.4월)
 - 다만,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낮은 평균 임금 상승률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미흡
 -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약 35%) 고수준 유지→구직포기 증가→실업률 하락
 - 따라서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는 엄밀한 시장분석이 필요

소매판매지수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 (2014년 5월).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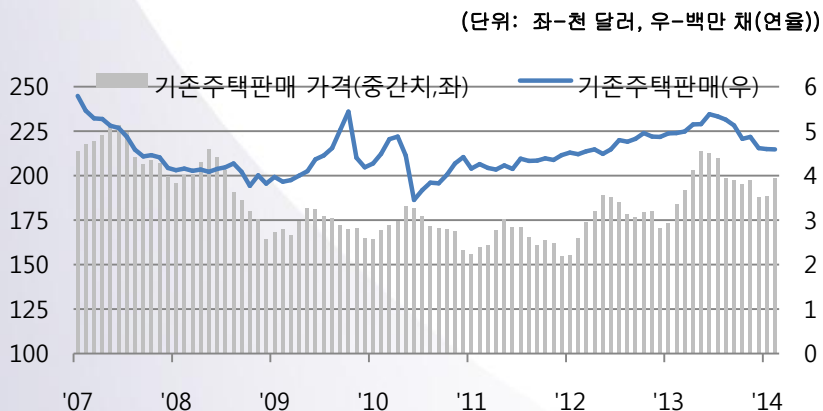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2014년 5월).

이슈: 주택시장 둔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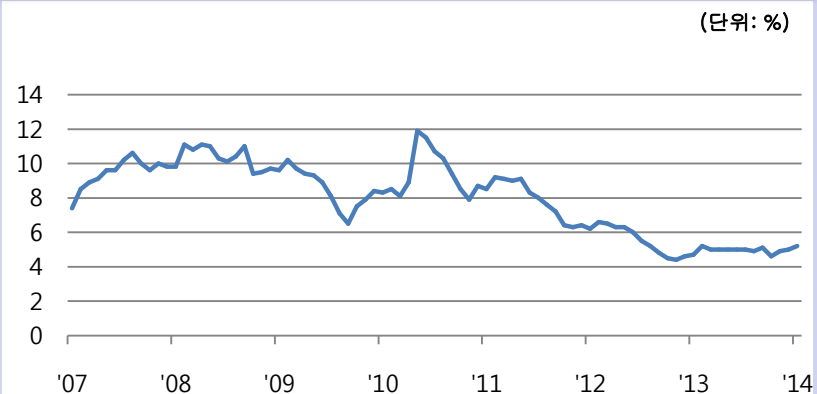
■ 주택시장 둔화 가능성

- 엘런 연준 의장은 주택시장 둔화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 표명
- 기존주택판매는 '13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
 - 기존주택판매가격(중간치): 21.4만 달러('13.6월) → 18.8만 달러('14.1월)
- 주택판매 부진은 모기지 금리 상승, 겨울 한파 등에 기인
 - 모기지 금리(30년, 고정): 3.59%('13.5월) → 4.80%('13.9월)
- 다만,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재고비율은 4.8%~5.2% 수준을 유지
 - 주택가격 사이클을 고려할 때 반등 가능성 존재

기존주택 판매 및 가격 추이



기존주택 재고비율



전망: 2014년 2.6% 성장 전망

■ 2014년 미국 경제는 내수중심의 성장을 바탕으로 2.6% 성장 전망

- 1분기 계절적인 요인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분기 이후 민간소비 및 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할 전망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2008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
 - ISM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제조업 경기 확장을 시사
 - ✓ ISM 제조업지수: 51.3('14.1월) → 53.2('14.2월) → 53.7('14.3월) → 54.9('14.4월)

현황: 미약한 경기회복이 진행 중

■ EU/유로존은 2013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유지

- EU/유로존은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
- 더구나 회원국별 경기회복의 편차가 확대되는 추세

EU/유로존 회원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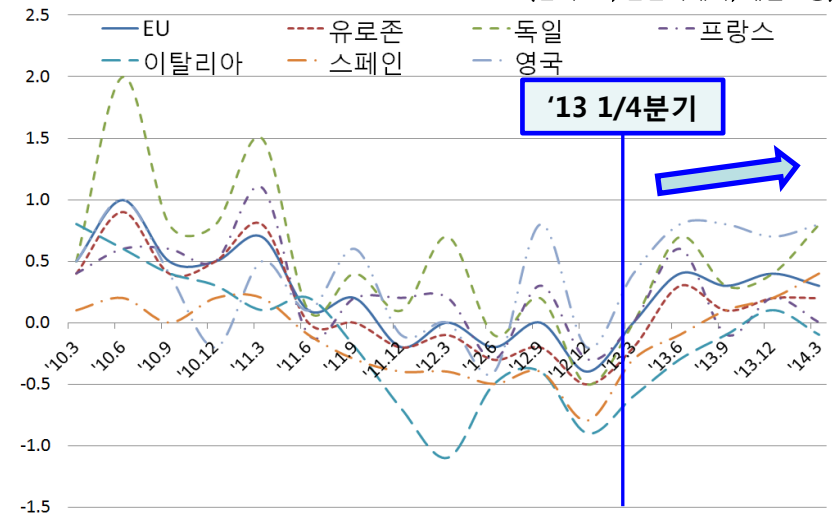
(단위: %, 전년대비, 계절조정)

	'08	'09	'10	'11	'12	'13
EU	0.4	-4.5	2.0	1.7	-0.4	0.1
유로존	0.4	-4.4	2.0	1.6	-0.7	-0.4
- 독일	1.1	-5.1	4.0	3.3	0.7	0.4
- 프랑스	-0.1	-3.1	1.7	2.0	0.0	0.2
- 이탈리아	-1.2	-5.5	1.7	0.4	-2.4	-1.9
- 스페인	0.9	-3.8	-0.2	0.1	-1.6	-1.2
영국	-0.8	-5.2	1.7	1.1	0.3	1.7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EU/유로존 회원국 경제성장률(분기)

(단위: %,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이슈: 저물가, 고실업률, 내수회복 편차

■ 저성장에 따른 저물가 기조

- 저물가 기조는 EU/유로존 회원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정 취약국에서 보다 뚜렷

■ 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 회원국의 높은 실업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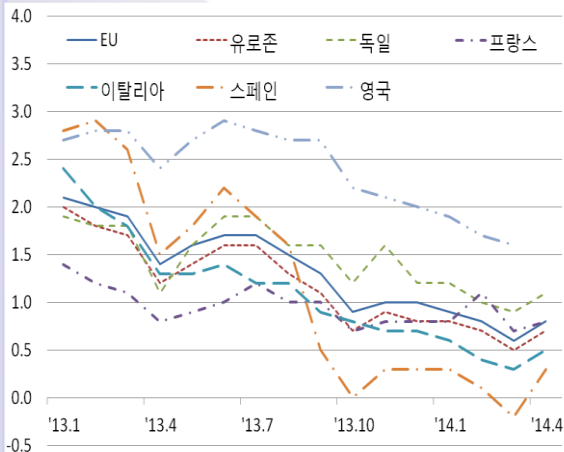
- 2013년 중 실업률 변동:
 - EU/유로존, 독일, 프랑스: 고점대비 0.2~0.3%포인트 ▼
 - 영국, 스페인: 고점대비 0.8%포인트 ▼
 - 이탈리아: 저점대비 0.8%포인트 ▲

■ 회원국간 내수회복 편차

- 회원국간 내수회복 정도의 편차가 뚜렷
- Balance sheet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투자와 소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EU/유로존 회원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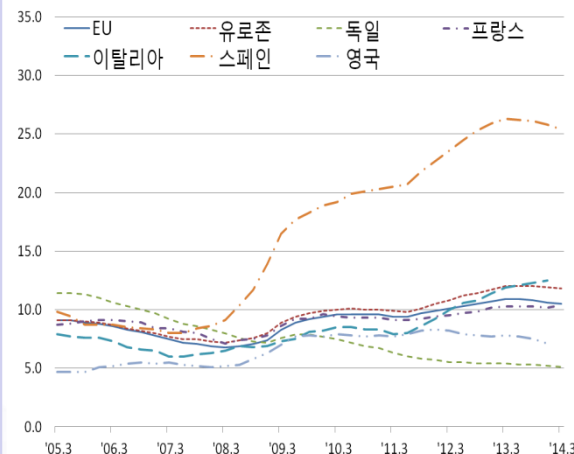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계절조정)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EU/유로존 회원국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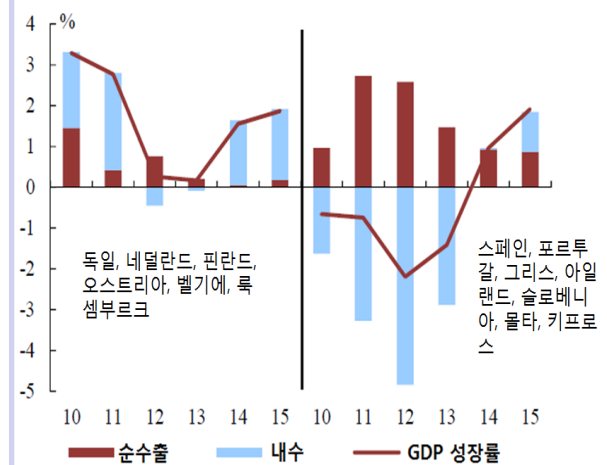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계절조정)



자료: 유럽통계청 (Eurostat).

순수출과 내수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단위: %)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전망: 2014년 1.1% 성장 전망

■ 2014년 유로존 경제는 1.1% 수준의 성장을 전망

➤ 내수부문 활성화가 1.1% 경제성장을 달성에 필수적

- 2013년 2/4분기부터의 플러스 경제성장 속 민간소비 회복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대

➤ 다만 현재 유로존의 잠재성장률이 2009년 이후 줄곧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경기의 하방리스크 또한 상존하는바 저성장의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

주요 기관별 EU/유로존 회원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EU 집행위원회		IMF		OECD		Oxford Economics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유로존	1.1	-0.4	1.2	-0.5	1.2	-0.4	1.2	-0.4	1.2
- 독일	1.8	0.4	1.8	0.5	1.7	0.5	1.9	0.5	2.0
- 프랑스	0.7	0.2	1.0	0.3	1.0	0.3	0.9	0.3	0.8
- 이탈리아	0.5	-1.9	0.6	-1.9	0.6	-1.8	0.5	-1.8	0.5
- 스페인	1.1	-1.2	1.1	-1.2	0.9	-1.2	1.0	-1.2	1.1
영국	3.0	1.7	2.7	1.8	2.9	1.7	3.2	1.7	3.0

주: 2013년은 실적치, 2014년은 전망치임.

자료: KIEP,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4년 5월), IMF(2014년 4월), OECD(2014년 5월), Oxford Economics(2014년 5월).

현황: 1/4분기 내수 주도의 높은 성장을 달성

■ 실질 GDP: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3.0%) 성장을 기록

- 1분기의 '높은' 성장률은 소비세 인상(4월 1일, 5%→8%)을 앞둔 사재기 효과와 투자확대의 산물
 - '14.1분기, 개인소비는 2.1%, 기업의 주택 및 설비투자는 각각 3.1%, 4.9% 증가(전기대비)
- 단, 외수부문에서는 LNG를 중심으로 한 수입증가(+6.3%)가 수출증가(+6.0%)를 상쇄

일본의 분기별 성장률

(단위 : %, 전기대비)

	2013년	분기별 실적				
		'13. 1Q	'13. 2Q	'13. 3Q	'13. 4Q	'14. 1Q
실질 GDP	1.6	1.2	0.9	0.3	0.1	1.5
개인소비	2.0	1.0	0.7	0.2	0.4	2.1
주택투자	8.9	1.8	0.8	3.3	4.3	3.1
설비투자	-1.5	-2.0	1.0	0.7	1.4	4.9
정부지출	2.2	0.9	0.7	0.2	0.3	0.1
공공투자	11.4	4.5	6.4	6.9	1.2	-2.4
수출	1.7	4.3	2.9	-0.7	0.5	6.0
수입	3.4	1.1	1.8	2.4	3.7	6.3

자료 : 일본 내각부 (2014년 5월 15일).

이슈: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효과

-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는 물가상승, 엔화가치 약세, 주가상승을 유발
 - 물가: 1%대의 안정적 상승률('14.3월 Core CPI 전년동기대비 1.3% 상승)
 - 환율: '13년에 엔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약 30% 하락
 - 주가: 외국인투자자 매수세로 인하여 '13년 한 해 46.5% 상승
- 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
 - 수출: 엔화약세의 수출증대 효과(J-Curve) 미실현, 무역적자 기조 심화
 - 투자: 일본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13년 설비투자액은 전년대비 1.6% 감소
 - 임금: '13년에 전년대비 0.7% 감소한 29.6만 엔(노동자 기본급여 기준)

전망: 세 번째 화살에 대한 신뢰여부가 성장세 회복의 관건

- 2014년 일본경제는 소비세 인상, 아베노믹스 정책효과와 약화로 성장세 둔화 예상
 - 2014년 연간 성장률은 1.3% 예상(cf. '13년 1.5%)
 - 2분기(-1.0%)부터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소비세 인상과 아베노믹스 두 개의 화살의 효과 약화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
 - (소비지출) '97.1Q, +2.2%→2Q, -3.3% vs. '14.1Q +2.1%→2Q -2.5%(전기대비)
 - 세 번째 화살을 통한 구조개혁의 성패가 성장률 회복의 중요한 관건
 - 규제완화, 신시장개척, 신산업 육성의 구조개혁 정책효과 발휘가 성장세 회복의 핵심 요소
 - 일본기업의 투자심리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개선 전망
 - 금년 대기업·제조업의 설비투자 3.6% 증가 전망(14.3월 BOJ의 단칸지수)
 - 수출은 해외경제 회복 및 엔화 약세 기조 지속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예상

2014년 일본 경제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1.6	1.6	1.0	1.3
민간소비	2.0	1.2	-0.5	0.3
고정투자	2.7	5.9	1.4	3.6
정부지출	2.2	1.6	1.9	1.8
수출	1.7	4.3	8.6	6.5

신흥 경제권

현황: 성장을 2분기 연속 하락, 1/4분기 7.4% 기록

■ 전반적인 수요 부진

- 수출, 투자, 소비 등 모든 지표에 걸쳐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저하
- 산업생산 증가율도 8%대로 떨어지고 있으나 PMI는 소폭(50.4)의 확장 국면을 이어감.

■ 서비스업 성장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

- '10년부터 '14년까지 성장률은 10.4%→9.3%→7.7%→7.7%과 같이 하락
- 신규고용창출은 1168만→1221만→1266만→1310만으로 오히려 증가
- 이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에 기인
 - '13년 서비스업의 비중(46.1%)이 처음으로 제조업(43.9%)을 추월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13년					2014년
	Q1	Q2	Q3	Q4	연간	Q1
GDP	7.7	7.5	7.9	7.7	7.7	7.4
산업생산	9.5	9.1	10.1	10.0	9.7	8.7
민간소비	7.9	8.6	8.7	8.8	8.5	8.5
고정투자	8.7	8.6	8.2	7.1	8.0	6.6
수출	16.9	3.3	2.4	5.4	6.5	-1.4
수입	12.5	8.0	8.5	6.6	8.8	7.9
CPI	2.4	2.4	2.8	2.9	2.6	2.3
M2	15.7	14.0	14.2	13.6	13.6	12.0

자료 : CEIC.

이슈: 무리한 경기부양보다 구조개혁을 우선시

- 2014년 성장률 목표(7.5%)는 '탄력적'이어서 지방정부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주문
 - 단, 1천만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성장률(7.2%)은 중국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

-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우선적인 정책 목표
 - '09년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투자의 한계효용이 크게 감소한 상태
 - 정책적인 저금리와 국유부문 위주의 대출 행태가 그림자 금융, 자산가격 거품과 같은 부작용으로 발생
 -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
 -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

- 회사채와 일부 금융상품의 디폴트를 용인하면서 구조개혁 추진
 - '14년 3월, 태양광, 철강, 부동산 회사의 디폴트 출현
 - 부실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의지 표명

전망: 목표치를 약간 하회하는 약 7.4% 성장 전망

■ 소비와 투자 감소의 대세는 지속될 전망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소비와 투자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요인은 없음.
- 그러나 7.2% 이하로 준경착륙은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전망
 - SOC 투자 위주의 적절한 미니 경기부양으로 7.2% 이상을 유도할 것
 - 4월초 중소기업 감세, 철도 투자 확대, 주거환경 개선, 농촌은행 지준율 인하 등의 미니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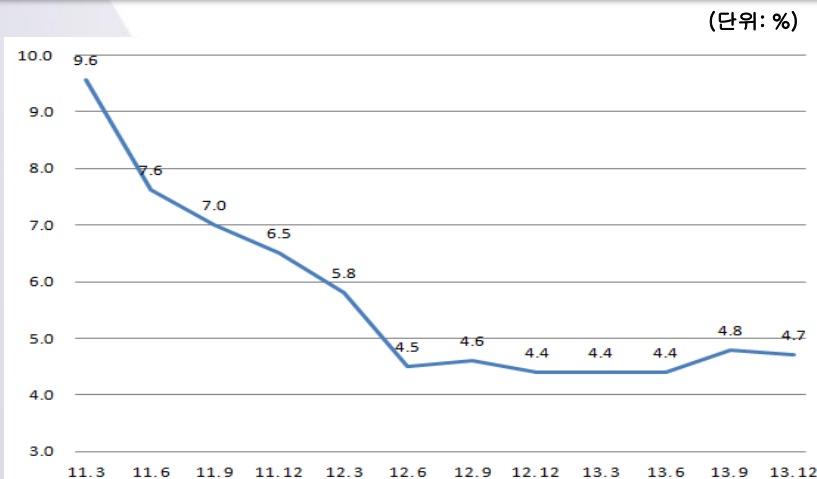
■ 수출의 기여도가 작년보다는 높아질 전망

- 최근 3년간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줄곧 마이너스(-4.2%, -2.1%, -4.4%)
- 올해 들어 수출 회복세가 보이고 있어 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
 - 홍콩 제외 수출 증가율(동기비, %): (13.12)4.6 (14.1~2)2.4 (3)6.8 (4)9.5

상저하고형 경제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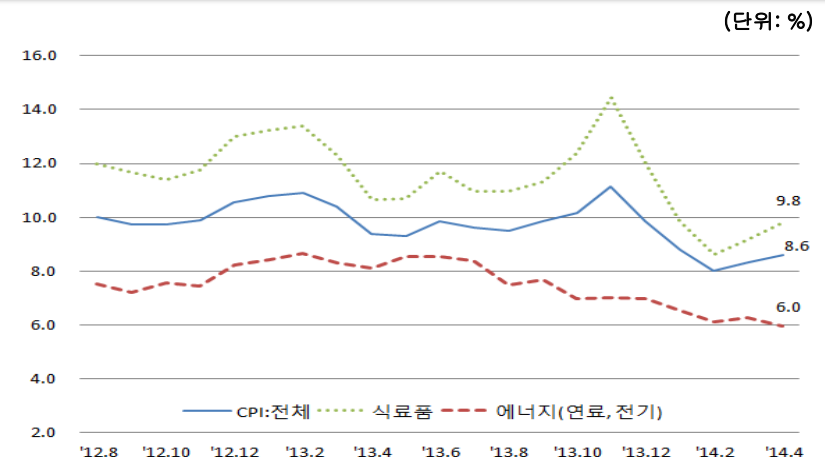
- 2014년 경제성장률은 5.0%(상반기 4.9%, 하반기 5.2%)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 특히 신정부 수립과 더불어 하반기부터 투자와 소비,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
- 인도경제의 하방리스크는 엘니뇨에 의한 농업생산 감소와 고금리의 지속
 - 슈퍼 엘니뇨로 인한 농업생산 하락(2009년 엘니뇨 당시 -1.3%) 예상
 - 식료품물가상승압력으로(2009년 6~12월 WPI 14.6%) 기준금리인하는 곤란할 전망

최근 인도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CEIC.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CEIC.

전년에 비해 낮은 성장세 전망

- 주요 4개국의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하락, 특히 하반기 성장률 둔화 전망
 -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 그러나 국가별로 경제성장 전망 혼재
 - 인도네시아: 견조한 민간소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출 둔화로 성장둔화 전망
 - 말레이시아: 공산품 수출회복에도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 둔화 우려
 - 필리핀: 민간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수출 모든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 전망
 - 태국 : 정정불안으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확실

동남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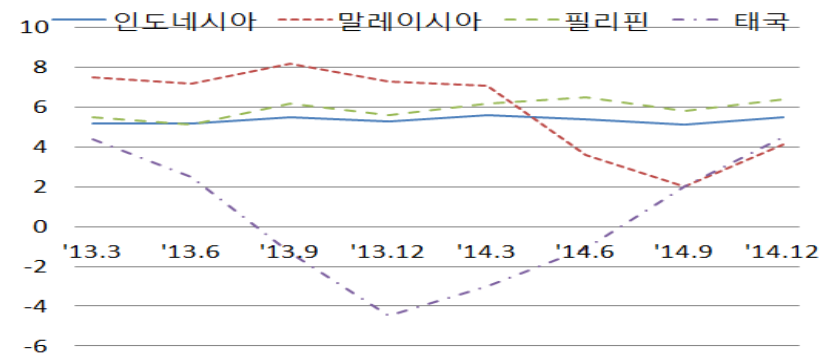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국가명	2013년	2014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인도네시아	6.1	5.3	5.3	5.2
말레이시아	4.4	4.8	5.8	3.9
필리핀	6.6	6.3	6.5	6.1
태국	4.8	0.7	-0.7	2.0

주: 2013년은 실적치, 2014년은 KIEP의 전망치임.

동남아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필리핀은 2014년 1/4분기, 그 외 국가들은 2014년 2/4분기 이후 추정치 및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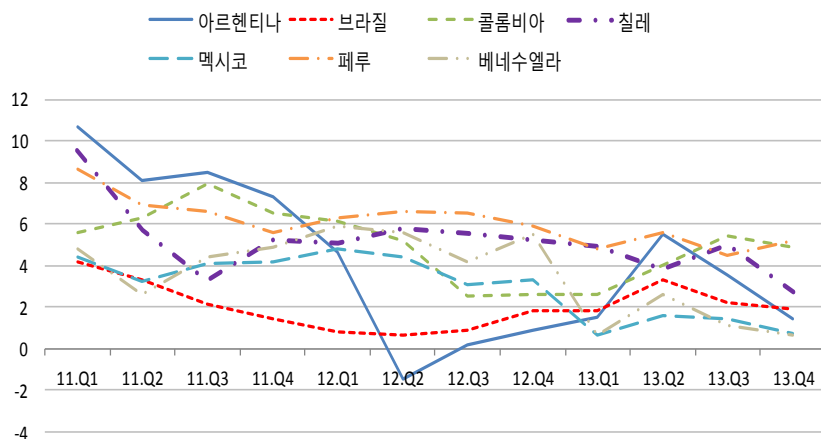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2014년 5월).

선진경제권 회복에도 성장 둔화세 지속 전망

- 2014년 중남미지역 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한 2.5% 전망
 - 투자부족(자금조달비용 상승, 대형인프라투자 축소), 소비부진(고물가), 교역조건 악화(자원가격 하락)로 저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 특히,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재량적 거시정책을 구사할 여지도 축소
-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
 - 물가, 환율, 고금리,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관리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필요

중남미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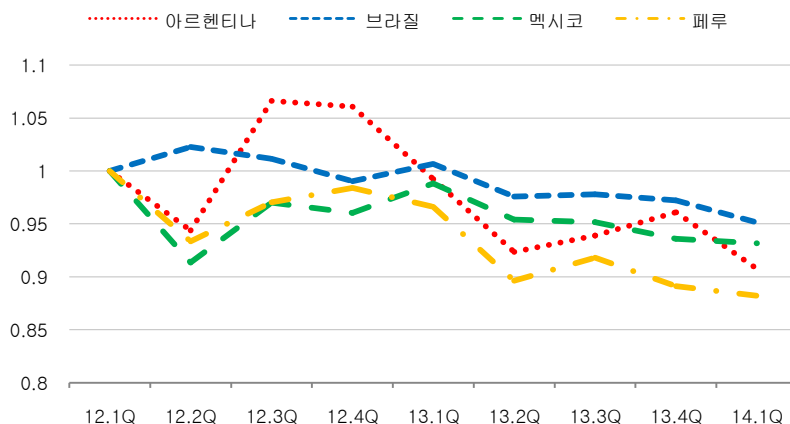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중남미 주요국의 교역조건 추이

(2012년 1분기=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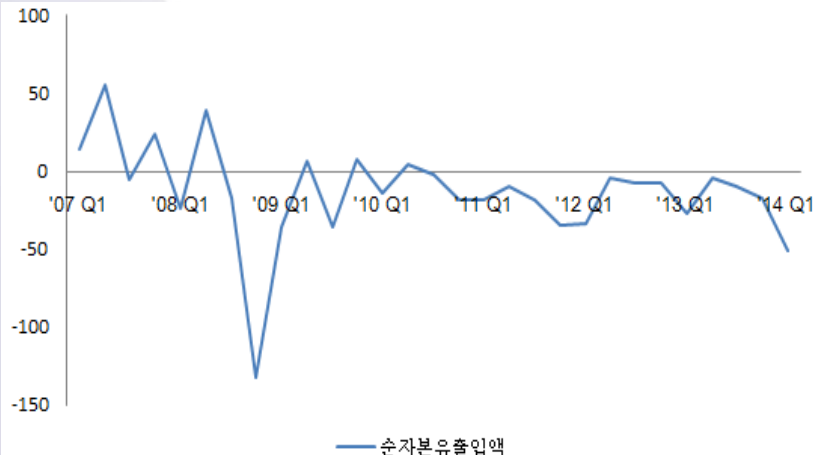
자료: Trading Economics.

주변지역정치 불안정성과 함께 성장 둔화 심화 전망

- 2014년 러시아의 성장률은 투자 및 소비부진으로 0.2%에 그칠 전망
 - 정정불안과 실질소득감소로 투자와 소비부진 지속 예상
 - 환율과 물가상승으로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
 - 정정불안으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외국자본 유출이 예상
 -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
-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하락할 전망
 - 카자흐스탄은 석유생산 확대계획의 차질로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
 - 기타 국가들은 국제상품 가격약세, 러시아 경제둔화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부진

러시아 분기별 순자본유출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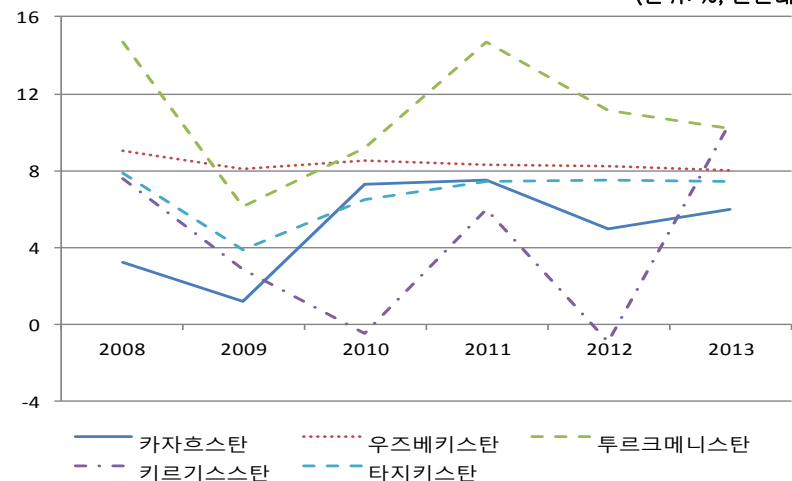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4년 4월 24일).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 실질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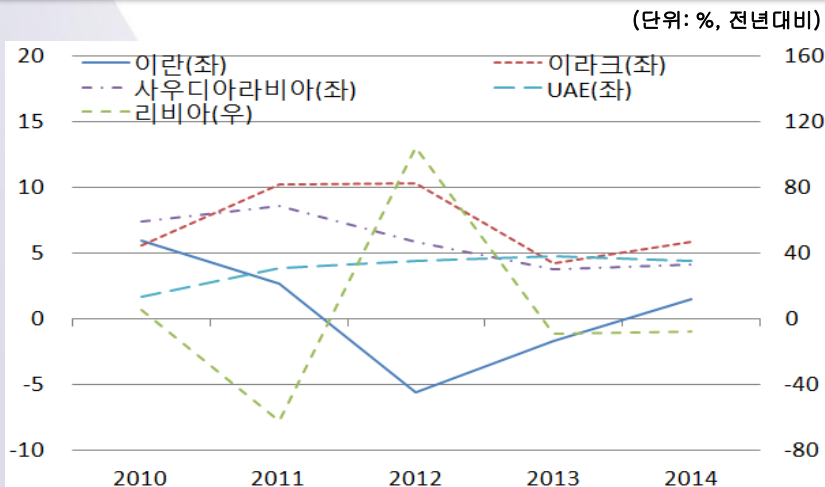


자료: IMF(2014년 5월),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주요 원유수출국이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중동은 유가하락, 역내 정정 불안 지속으로 3%대 초반의 경제성장 예상
 - 원유수출국: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부문 저성장을 비석유부문이 상쇄하여 3%대 성장 전망
 - 원유수입국: 정정 불안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2%대 후반 성장 예상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작년(4.9%)대비 증가한 5.4%로 전망
 - 농업생산성 향상과 천연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에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
 - 원유수출국, 저소득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중동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SSA 전체		4.9	5.4	5.5
원유수출국	평균	5.8	6.7	6.7
	나이지리아	6.3	7.1	7.0
중소득국	평균	3.0	3.4	3.7
	남아공	1.9	2.3	2.7
저소득국·취약국		6.5	6.8	6.8

주: 2013년은 실적치.
자료: IMF (2014년 4월).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

달러화 강세 전망

■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낼 전망

-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 등의 통화정책 기조가 반대로 나타나 달러화의 강세 예상
- 미 연준은 자산매입 연내 중단, BOJ은 양적완화 유지, ECB는 추가 완화조치 시행 전망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추이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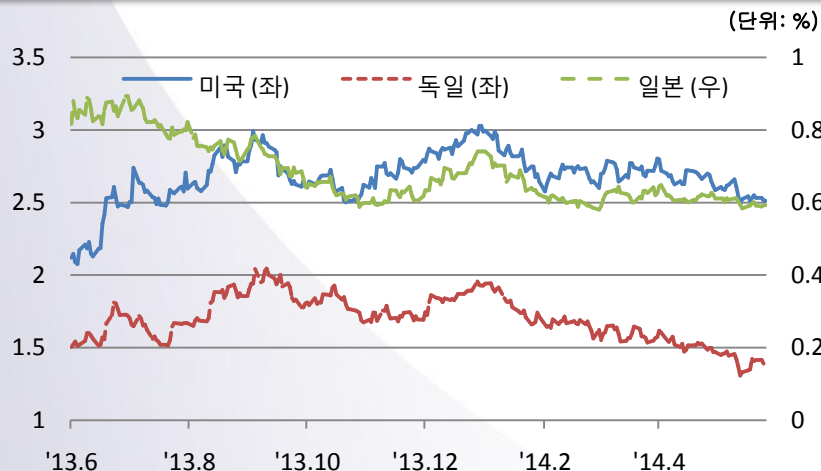
	현재 (2014.5.26)	'14.Q3	'14.Q4
달러/유로	1.36	1.34	1.32
엔/달러	102	104	107
위안/달러	6.24	6.13	6.06
원/달러	1,024	1,048	1,044

주: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치 평균(5월 1~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하반기 주요국 금리는 상승할 전망

- 하반기 미국 국채금리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다소 상승할 전망
 - 미 국채금리는 테이퍼링 실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급상승하였던 위험프리미엄이 조정되면서 하향 안정세 유지
 - 일본과 유럽의 상반기 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
 - 단,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주요국의 금리상승 가능성 존재

주요국 장기(10년)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주요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

(단위: %)

		현재 (^{'14.5.26})	'14.Q2	'14.Q3	'14.Q4
미국	기준금리	0.25	0-0.25	0-0.25	0-0.25
	국채금리	2.51	2.84	3.04	3.23
유로존 (독일)	기준금리	0.25	0.17	0.16	0.17
	국채금리	1.39	1.61	1.77	1.95
일본	기준금리	0.1	0-0.1	0-0.1	0-0.1
	국채금리	0.59	0.65	0.72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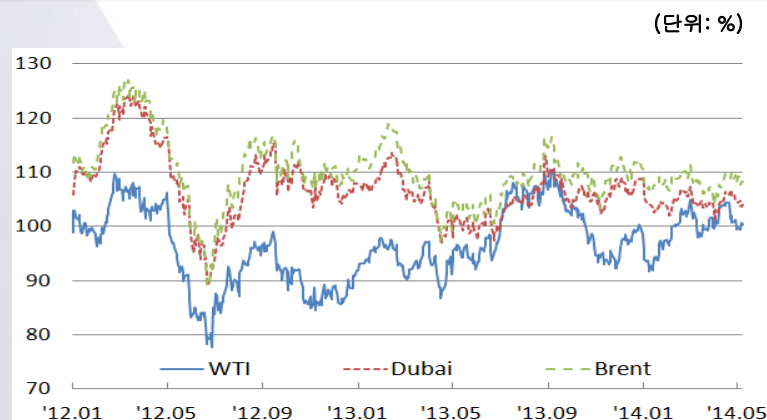
주: 주요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치 평균(5월 1~27일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 원유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며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계원유수요 둔화 예상
 - 미국 중심의 비 OPEC 원유 생산 증가 지속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리비아 원유 수출 지연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 상존
- 2014년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전년(105.3 달러)보다 하락한 배럴당 103 달러 수준 전망

국제유가 추이



주: WTI(1개월물 선물가격), Dubai(현물가격), Brent(현물가격).
자료: 국제금융센터.

세계 원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 류	2011	2012	2013	2014
수요	88.1	89.0	90.0	91.1
OECD	46.5	46.0	45.9	45.8
비OECD	41.6	43.0	44.1	45.3
공급	87.6	89.5	90.2	-
OPEC*	35.2	36.7	36.0	-
비OPEC	52.4	52.8	54.2	55.6

주: *원유, 액화석유류(Natural Gas Liquids) 등.
자료: OPEC(2013년 6월), 단기전망보고서(MOMR).

비철금속 과 곡물가격은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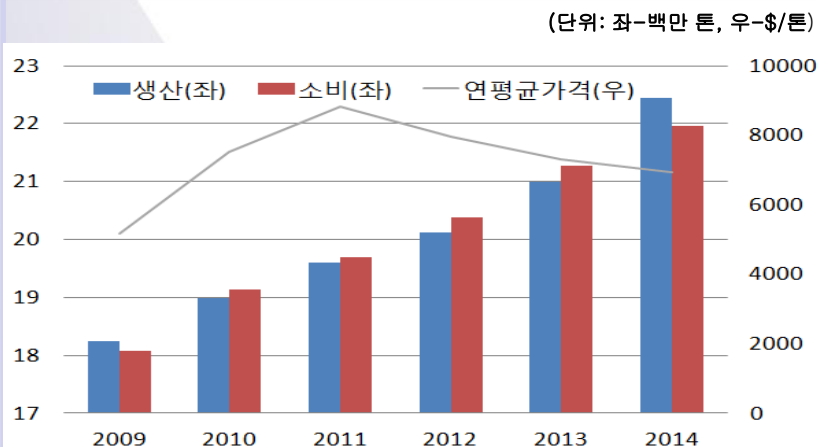
■ 비철금속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전망

- 신흥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 증가율 둔화 예상
- 페루와 칠레 등 주요 전기동 생산국의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 예상

■ 곡물은 현 수준에서 소폭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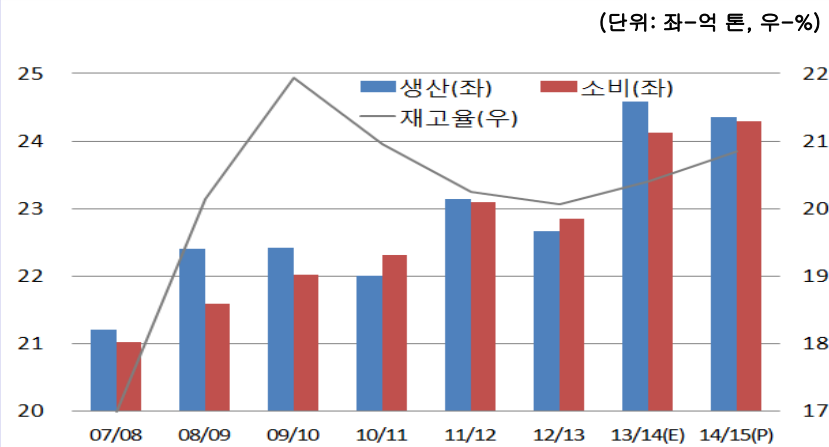
- 전세계 곡물생산은 전년대비 감소하나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과 엘니뇨 발생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세계 전기동 수급전망



자료: Korea PDS.

세계 곡물 수급전망



자료: 미국 농무부(2014. 5),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감사합니다.